

그리스 의학에 나타난 여성의 위치와 생물학적 성격 —피타고라스 학파에서 히포크라테스 학파에 이르기까지—

金 明 子

숙명여대 화학과

Women in the Ancient Greek Medicine —From the Pythagoreans to the Hippocratic School—

KIM Myung Ja

Department of Chemistry,
Sookmyung Women's University

ABSTRACT

The development of the life sciences in ancient Greece is considered to be influenced by the interaction between the assimilation of popular assumptions and their critical analysis through rational inquiry from popular patterns of thought. This paper concerns it self with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products of biological and medical investigation from the fifth century to the fourth century B.C. and the prevailing ideology of the inherent inferiority of women.

Thus, topics in biology in the pre-Socratic and the Hippocratic writings, including sex difference in life-matter theory and the divergent views concerning the question of the woman's role in reproduction and heredity are discussed along with the influence of contemporary attitudes toward women on the interpretation of women's physiology. This paper also deals with available evidence for women's participation as medical practitioners from the epigraphic monuments, and analyzes the obstetrical and gynecological works in the Hippocratic Corpus in relation to the position and role of woman in the medical treatment.

I

1960년대에 미국에서 부활된 여성운동 및 여성연구의 태동은 과학자사회의 성차별주의를 논의하는 계기를 마련함으로써 과학전문지에서의 여성의 문제를 다룬 1964년도 MIT Symposium¹⁾에 잇달아 1972²⁾년과 1978³⁾년의 New York Academy of Science Conference, 1981년의 Purdue Conference⁴⁾

* 1986년 10월 6일 접수 : 1986년 10월 13일 게재결정

1) J.A. Mattfeld and C.G. Van Aken, eds., *Women and the Scientific Professions*, Cambridge; MIT Press, 1965.

2) R.B. Kundsins ed., *Women and Success; The Anatomy of Achievement*, New York; William Morrow, 1974

3) A.M. Briscoe and S.M. Pfafflin, eds., *Expanding the Role of Women in the Sciences*, New York; New York Academy of Sciences, 1979.

4) V.B. Haas and C.C. Perrucci, eds., *Women in Scientific and Engineering Professions*, Ann Arbor; The University of Michigan Press, 1984.

등에서 여성의 과학계 진출을 활성화시키는 구체적 전략들이 제시된 바 있다.

그러나 이러한 동향 속의 여성과 과학의 주제는 여성학의 한 분과로서 실천적 측면을 강조하는 경향이며, 역사 속에서의 과학자 또는 철학자로서의 여성에 관한 사례 연구 및 과학이론적 측면에서의 여성의 성격 등은 심층분석되지 못하였다.

과학기술사에 나타난 여성들에 관한 연구로는 1913년 Mozans의 저서 발간 이후, 1986년 Alic의 *Hypatia's Heritage*가 출간되어 광범위한 의미에서의 과학자로서 역사에 나타난 백명 이상의 여성들을 소개한 바 있으나⁵⁾, 전설적 성격의 이들 일화는 사가들의 보편적인 인정을 받기 보다는 흥미있는 이야기거리로서 더욱 관심을 끄는 것 같다.⁶⁾

과학기술 발달에서의 여성의 공헌에 관한 역사적 연구 및 科學思想에 나타난 여성의 성격에 관한 연구는 미흡한 편이며, 그 이유로서는 일반적으로 논의되는 바와 같이 첫째로 여성의 지적 활동에 관한 역사적 정보들이 대부분 남성들에 의해 추려진 것들이라는 점이 지적될 수 있다.

둘째로, Lloyd에 의해 언급된 바와 같이⁷⁾ 고대 이래로 남성 위주로 구축된 전통적 사고체계는 여성이 열등하다는 이데올로기를 굳힘으로써 여성들에 관련된 보존자료들마저도 깊이 연구하지 않은 채 방치하는 경향을 낳은 것으로 보인다.

세째로, 성차별의 논의를 떠나서 본다면, 옛 과학이론들은 최신의 과학지식에 비해 열등하거나 잘못된 것으로 다룸으로써 연대기적 사료일 뿐 깊이 분석할 필요가 없다고 보는 극단적 견해도 연구 분위기 침체의 한 요인이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과학사 연구의 새로운 시각은 과학의 발달이 미신과 오류의 집적으로부터 벗어나 확실하고 분명한 패러다임으로 전향되는 것으로 파악되기보다는, 현재로서 미신·오류로 간주되는 지식이 당시의 시대적·사상적 배경에서는 오히려 합리적 지식이었음을 인정한다. 이런 관점을 취한다면, 예컨대 고대로부터의 生物科學思想에서 성의 차이가 어떻게 규정되었던가를 보여 주는 풍부한 자료들은 그 자체로서도 충분히 연구할 가치를 지니는 것이며, 나아가서 사회적으로 널리 수용되었던 이데올로기가 여성에 관한 의학적·생물학적 이론의 형성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 그 역으로 여성에 관한 과학이론이 여성의 사회적·문화적·정치적 지위에 어떻게 작용했는가의 상호작용을 파악하는 데 근본적인 중요성을 띤다고 생각된다. 다시 말해서 여성이란 성의 본질이나 기능이 과학적으로 어떻게 인식되었던가를 분석하는 일은 사회·경제·문화에서의 전통적인 여성의 위치를 이해하는 데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시기적으로 여성해방운동과 비슷하게 일어난 반문화 또는 반과학운동은 모두 가치지향적 운동으로 분류되는 바, 둘 사이에 상관관계를 찾을 수 있다. 여성연구의 학자들은 전통적인 과학의 방법론과 내용 자체가 가부장적 사고체계의 틀에서 형성된 것이므로, 여성의 직관적 통찰력, 자연과의 조화·상호작용을 존중하는 성향의 가치관이 과학활동에 도입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남성의 위계적·인과론적·정복적 특질이 과학 발달에 따른 부작용을 심화시켰다고 주장하는 이들 학자들은 여성에게 과학적 활동에 필요한 자질(지능·창의력 등)이 결여되었다고 본 전통적 믿음을 부정하고, 여성의 집중력·추진력·인내력 등이 앞에서 말한 특질과 아울러 과학발달에 기여할 수 있는 자질이라고 주장한다.⁸⁾

한편 문명비판의 움직임 가운데 ‘新科學運動’의 주창자들은 17세기 이래 과학적 발견에 의해 자

5) H.J. Mozans, *Woman in Science*, New York and London: D. Appleton & Co., Reprinted by the MIT Press, Cambridge, 1974; M. Alic, *Hypatia's Heritage*, The Womens Press, 1986.

6) T. Monteiro, *New Scientist*, No. 1505, p. 54, 24 April, 1986.

7) G.E.R. Lloyd, *Science, Folklore and Ideology*, p. 58, Cambridge Univ. Press, Cambridge, 1983.

8) Haas & Perucci, *op. cit.* (註 4)와 R. Bleier, *Science and Gender* (The Athene Series, Pergamon Press, 1984)등의 저술에서 강조되는 바이다.

연을 지배할 수 있다는 공격적 “男性原理”가 현대문명의 병폐의 주요 원인이라 규정하고, 신과학운동은 자연과의 조화·협동 관계를 유지하는 “女性原理”를 존중해야 한다고 주장한다.⁹⁾ 그러므로 이들 두 움직임에서 공통되는 논지는 여성적 특질이 과학활동에 반영되어야 함을 강조함으로써 “여성과 과학”의 주제에 큰 관심을 갖게 한다. 따라서 어느 주제나 그러하듯이 “여성과 과학”에 대해서도 역사적 관점에서 출발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된다.

이 글에서는 서구과학전통의 모체였던 그리스의 自然哲學의 태동기를 중심으로 특히 소크라테스 이전의 자연철학에 초점을 맞추어, ¹⁰⁾ 피타고라스 학파와 히포크라테스 학파에서의 의술에 관련된 여성의 활동과 의학지술상의 이론들에 나타난 여성의 성격에 관해 고찰하고자 한다. 그리고 전설·설화에서 파악되는 여성의 위치와 기록된 사료에 바탕한 여성의 성격 사이에 어떤 연결이 가능할지를 살피고자 한다. 이런 기초작업은 과학의 시작에서의 여성의 영향과 과학의 대상으로서의 여성의 존재를 살핀다는 점에서 의의있다고 생각된다.

II

그리스는 기원전 5세기경 문학의 절정을 이루었고, 기원전 4세기경에는 철학의 눈부신 발달을 이루었던 것으로 기록된다. 그러나 이들 知的 활동에서의 여성의 기여는 학문영역은 물론, 지역·시기로 보아 지극히 제한된 범위에 국한된 것으로 평가되었다.¹¹⁾

지중해 연안의 polis의 성립과 함께 나타난 초기의 학문활동에서 가르침은 주로 전설과 교훈을 운문으로 읊는 형태였고, 밀레토스에서 비롯되는 자연철학의 태동 이후 초기의 자연철학자들 가우메크세노파비스, 파르메니데스, 엠페도클레스 등은 자연을 詩句로 묘사하는 형편이었다.¹²⁾ 그러므로 이 즈음 최초로 나타난 사포(Sappho)¹³⁾ 등 hetairai의 詩作활동은 자연철학자로서는 아닐 지라도¹⁴⁾ 知性으로서의 자질을 보여준 예로서 특기할 만 하다.

Hetaira는 당시의 그리스 사회에서 남성들과 자유롭게 접촉할 수 있는 특수계층이었던 까닭에 哲人들과의 사이에도 수많은 일화를 남기고 있다.¹⁵⁾ 그러나 이들의 사회적 특수성은 윤리적 측면에서 비난의 대상이 됨으로써, 최근에는 르네상스 시대의 여류시인들의 활동을 능가했다는 평가를 받기

9) 김규철 外, 「신과학운동」, 범양사, 1986.

10) 그리스 자연철학은 자연에 관한 해석에 있어 신화적 자연관과는 달리 神性보다는 인간의 합리적 이성을 중시하고 사물에 관한 본질 구명의 추론을 시도했으므로, 보다 근대적 의미에서 과학이 시작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11) W. Durant and A. Durant, *The Story of Civilization II, The Life of Greece*, New York, 1954.

12) 기원전 8세기경 셈어와 페니키아 알파벳을 빌어 그리스어의 표기에 사용함으로써 결국 선행문자 상형문자보다 쉬운 알파벳 형태의 그리스어를 정립한 것은 산문체로 자연을 묘사하게 함으로써 자연철학의 성립에도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

13) 사포는 레스보스(Lesbos)의 귀족출신으로서 역사상 최초의 사립여학교를 설립하고, 시·음악·무용 위주의 교양교육을 줬다. 그녀는 자신의 제자들을 hetairai (companions)라 부르고 서정시 작품을 주고 받았는데 이로부터 “Lesbian love”란 용어가 유래된다. (Durant, *op. cit. The Life of Greece*)

14) 에피쿠로스와 교유했던 hetaira Leontium은 자연철학과 관련되어 테오프라스토스(Theophrastus)의 견해를 반박했다고 전해지나, 확실한 내용에 대해서는 자료를 찾지 못하였다.

15) 헤타이라(Hetaira)는 창녀와는 달리 철인·귀족·부유층의 신분 높은 남성들을 택해 장기적인 관계를 지속한 것이 특징이다.

기원전 5세기경 밀레토스 출신의 헤타이라인 아스파시아(Aspasia)는 헤타이라 학교를 세우고 수사학·철학을 가르쳤다고 전해진다. 소크라테스는 *Memorabilia*에서 그녀를 가리켜 자신의 수사학 선생이라고 불렀으며, 당대의 아테네 최고의 자연철학자 아낙사고라스와도 긴밀하게 교류했고, 결국 아스파시아는 페리클레스의 아내가 되었다: N. Carroll, *Greek Women*, p. 197, Phila., 1908; P. Lacroix, *History of Prostitution*, I, p. 154, New York. 1931. (Durant, *op. cit.* 참조)

도 하지만 대체로 심각한 수난의 제물이 되었다.¹⁶⁾

학파에 속한 여성들로서는 역사상 최초로 학문적 단체를 결성한 것으로 기록되는 피타고라스 학파에서 그의 아내 Theano와 딸 Damo를 비롯한 여성들이 나타났고,¹⁷⁾ 퀴레나이 학파의 아리스티포스(Aristippos)의 딸인 Arete도 아버지를 계승하여(기원전 365년) 자연철학과 도덕철학을 가르쳤다고 전해진다.¹⁸⁾ 그리고 플라톤의 제자 가운데 두명의 여성이 남장을 하고 모임에 참석했다는 기록이 발견되는 것으로 보아 여제자들이 있었던 것이 확실하다.¹⁹⁾ 플라톤의 자연철학 체계에서의 수학의 중요성으로 보건대,²⁰⁾ 그의 여제자들도 수학에 어느 정도 조예가 있었으리라는 추론도 가능하다.

자연철학자로서의 여성의 존재는 분명 사료에 나타나고 있다. 기원후 200년경의 Athenaus의 저술 *Deipnosophistoe*에는 수학과 철학에 탁월했던 몇몇 그리스 여성이 있었다고 언급돼 있으며, 후에 Menagius의 *Historia Mulierum Philosopharum*에는 고대 저술에서 적어도 65명의 여성 철학자가 언급됨을 발견했다고 적혀 있으나, 어느 경우에서나 확실한 자료는 미흡한 형편이다.²¹⁾

역사적으로 그 업적이 잘 알려져 있는 최초의 자연철학자이자 대표적인 수학자인 여성은 그리스 고전시대가 아닌 알렉산드리아 과학시대의 히파티아(Hypatia, 370~415 A.D.)이다. 그녀의 저술상업적으로는 디오판토스(Diophantos)의 *Arithmetica*에 대한 평론, 아폴로니오스(Apollonios)의 *Conic Section*에 대한 연구, *Astronomical Canon* 등이 있으나, 이 경우에도 일차적 자료로서 온전히 보존되지는 못하였다.²²⁾

이들 학문적 전통을 떠나 그리스 시대의 여성들이 어떤 일에 종사했는가의 물음에 대해서는 주로 아테네 지역에서 발견된 묘비명을 비롯한 각종 기록으로부터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 비록 단편적인 자료이기는 하나 이에 따르면 여성들은 대체로 매춘을 제외하고는 저임금의 일거리에 종사했던 것으로 파악된다. 그리하여 유모, 세탁부, 식품상, 악기주자 등이 발견되었고, 기원전 4세기경 노예로부터 해방된 여성들의 직종에 관한 기록에서는 21건의 비문 가운데 자수직(woolworker)이 7건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내고 있으며, 그 밖의 장인직으로는 향료 제조인이 있을 뿐이다.²³⁾ 고

16) 사포의 시는 11세기 콘스탄티노플과 로마에서 교회의 결정에 따라 불살라졌고, 현재 보존된 것은 약 600줄 가량이다: J.P. Mehafty, *History of Greek Literature*, I, p. 202, London, 1908. (2차자료: 註 5)

17) 사료상 테아노(Theano)는 유명한 것은 사실이나, 때로는 피타고라스의 딸 또는 제자라고도 언급되고 있다. 피타고라스의 죽음 이후 테아노는 북아프리카 지역으로 옮겨 학파를 존속시켰다는 설도 있으나, 피타고라스의 아들인 텔라우게스(Telauges)가 계승했다는 설도 유력하다. 피타고라스는 그의 *Commentaries*를 딸 다모(Damo)에게 맡겨 누설되지 않도록 조치했다고 전해지는데, 다모의 타락에 관해서도 언급되고 있다: Iamblichus, *De vita Pythagorica*, ed. Ludwig Deubner, p. 146, Leipzig: Teubner, 1937 (이하 본서의 인용에서는 Iam. vp로 약칭될 것임.) 피타고라스의 딸들로는 Aesara, Arignote, Myia, 아들들로는 Mnesarchus, Arimnestus, Mamercus 등이 이름을 남겼다. (2차 자료는 註 33 p. 114 참조)

18) 아테네(Arete)에 관해서는 Boccaccio의 *De Laudibus Mulierum*에 실려 있는데, 키레네 학교와 Attica Academy에서 35년간 강의하면서 40권의 저술을 남기고 110명의 제자를 길러냈다고 한다. 그녀의 묘비명에는 그리스의 영광으로서 헬렌(Helen)의 아름다움, 티르마(Thirma)의 미덕, 아리스티포스(Aristippos)의 문필, 소크라테스의 영혼, 호메로스(Homeros)의 언변을 갖춘 "The Light of Hellas"란 찬사가 새겨졌다.

19) Diogenes Laertius 6, 96~8, A.D. 3세기: 당시의 그리스 사회에서 남성들의 향연에 참석할 수 있는 여성은 Hetairai 신분에 국한되었다. (이하 Diogenes Laertius는 D.L.로 약칭될 것임: 註 33, p. 515 참조)

20) 단적인 예로서 아카데미아의 현판에 새겨진 문구, "기하학자가 아닌 사람은 들어오지 말라"(Let no one enter here who is not a geometer)를 연상할 수 있겠다.

21) Menagius, *Historia Mulierum Philosopharum*, p. 3, Amstelodami, 1692. (Mozans, *op. cit.* p. 137 참조)

22) 히파티아(Hypatia) 또한 다모나 아테네의 경우처럼 알렉산드리아 학파의 大數學者 테온(Theon)의 딸로서, "완전한 인간"으로 키우려 했던 아버지의 배려로 기념비적 존재가 되었다고 전해진다. 그녀는 발명에도 기여하여 증류장치, 수면측정장치, 액체비중계, 천구의 등을 남겼으나, 무제이온(Museion)에 창설된 신플라톤주의 분파에 속했던 것이 화근이 되어 예루살렘의 St. Cyril Church의 파라볼란스(Parabolans) 손에 학살되었다. 이런 말로는 그녀의 저술이 후세에 보존되지 못한 것과 관련되는 것 같다: H.J. Mozans, *op. cit.*, p. 168 (註 5); J. Rothchild, *Women, Technology, and Innovation*, p. 307, Pergamon Press, 1982.

23) M.R. Lefkowitz and M.B. Fant, *Women's Life in Greece and Rome, A Source Book in Translation*,

대로부터 향물질 제조와 염료 추출에서 비롯되는 화장품 제조의 전통은 의학술의 한 부분으로서 여성들과 깊이 관련되는 것으로 보인다.²⁴⁾

기록상 비문이나 위패에 나타난 문구에서 의사로서의 여성의 존재는 나타나고 있다. 예를 들어 기원전 4세기경의 것으로 보이는 아테네 소재의 위패에는 하나는 서 있고 하나는 앉아 있는 두 여성의 둘레에 아기들이 에워싼 그림이 새겨졌고, 다음과 같은 비명이 남겨져 있다.²⁵⁾

산파이자 의사인 파노스트라테(Phanostrate)가 여기에 높다. 그녀는 그 누구에게도 고통을 주지 않았으며, 모두들 그녀의 죽음을 슬퍼했노라.

그리고 기원전 350년 이후의 것으로 보이는 또다른 묘비명에는 간호원 멜리타(Melitta)를 기리는 찬사가 새겨져 있다.

여기 흙 속에 히포스트라테(Hippostrate)의 훌륭한 간호원이 누워 있다; Hippostrate는 아직도 너를 그리워한다.²⁶⁾

최근 들어 이들 비문 연구는 고대의 의녀들의 자취를 살피는데 중요한 자료로 평가되고 있는데, 포르투갈 지역에서 발견된 비문에서도 “medica optima” 또는 “mistress of medical science”라는 글귀가 발견된다. 그리고 medica의 그리스어에 해당하는 iatromaia는 그리스 태생의 의녀를 칭한 것으로 해석되는데, 발리아이(Valiae)라는 여성을 kalista iatromaia(the best doctor)라 적은 것이 발견된다.²⁷⁾

그러므로 의녀들의 존재는 분명히 나타나는 것이지만, 시기적으로 언제였는가를 사료에 바탕하여 결정하는 것이 문제가 된다. 앞에서 제시된 기원전 4세기경의 비문의 증거 이외에 고대의 저술 분석에서도 단서를 얻고 있으며, 플라톤의 「공화국」(Republic)을 근거로 기원전 4세기경 의녀가 실존했으리라 주장한 논문 등이 그런 연구사례에 속한다.²⁸⁾

그리고 「히포크라테스 전집」 *Hippocartia Corpus*에 나타난 여성들의 역할의 분석은 당시 의학에서의 여성의 위치와 성격을 파악하는데 좋은 자료라고 생각되며(이 글 III에서 자세히 다룰 것임), 히포크라테스 이후 갈레노스와 플라니우스의 저술에도 여성들이 다수 등장하고 있고,²⁹⁾ 의녀들의

chap. IV, The Johns Hopkins Univ. Press, Baltimore, Maryland. 1982. (이하 본서의 인용에서는 *Source Book* 으로 약칭될 것이며, 본 논문에 인용된 일차사료는 주로 여기에 의존하였다: 한국여성개발원 소장도서임).

24) 파피루스(Papyrus)에서도 의료 및 향장 처방의 공통점이 발견된다. 헬레니즘 시대에도 화장품은 Ornatrix (젊은 여노예)의 지도 아래 Cosmetae (어린 여노예)가 만들어서 귀족들에게 발라 주었으며, 갈레노스에 의하면 Cleopatra는 향장분야의 저술을 남겼다; C.H. Lawall, *Four Thousand Years of Pharmacy*, Lippincott, Phila., 1927.

25) S.B. Pomeroy, “Plato and the Female Physician (Republic 454d2)”, *Amer. Journal of Philology*, 99, 499~500, 1978(2차 사료는註 98 p.345 참조); *Greek Inscriptions*, Kaibel 45. (G. Kaibel, *Epigrammata Graeca ex lapidibus collecta*, Berlin, 1878)

26) ‘나는 네가 살아 있을 적에도 사랑했고, 지금 땅 속에 묻힌 뒤까지도 사랑하며, 평생토록 너를 기리리라. 만약 지하에서도 삶에 대한 보상이 있다면 영광은 제일 먼저 네게로 돌아가리라.’: *Greek Inscriptions*, Kaibel 48 (註 25).

27) H.J. Mozans, *op. cit.*, chap. VIII (註 5): 라틴 저술에서 medica라는 호칭이 나타난 것은 기원전 1세기 Augustus 시대로 보이지만, 의녀들의 활동이 그 훨씬 이전부터 있었던 것은 확실하다.

28) Pomeroy, *op. cit.*, 496~500 (註 25).

29) 언급되기로는 Salpe, Lais, Elephantis, Olympias, Sotira, Antiochis 등이며, 이 중 Salpe와 Sotira는 산파라 불리우고 있다. 로마 시대의 묘비명에서 발견된 의녀들은 Domnina, Julia Pye, Minucia Asste, Venuleia Sosis, Melitine 등이며, 그 밖에 주로 노예로부터 해방된 수많은 산파들이 발견된다. 그리고 기록고 초기에 개종한 여성들 가운데 의녀가 상당수로서, 성 테오도시아(St. Theodosia), 성 니케라타(St. Nicerata) 등이 발견되며 파비올라(Fabiola)는 최초의 자선병원을 세운 것으로 기록된다. 플라니우스는 로마 초기 거의 600년간 전문의사들이 없었다고 적고 있으나, 기원전 2세기경부터 그리스에서 내과·외과의 의사들이 유입되면서 외국인으로서는 좋은 대우와 명성을 누렸던 것으로 보인다. 그 뒤 의녀들도 출현하기 시작하였고, 의학 저술가인 테오도루스 프리스키아누스(Theodorus Priscianus)는 그의 *Rerum Medicarum*의 3권 서문에서 빅토리아(Victoria)라는 의녀를 칭송하면서 헌정한 바 있다; *Source Book*, XIII (註 23)

부인병 연구 저술이 보관된 것도 있다.³⁰⁾

앞의 자료에서 나타나는 바와 일치하는 의녀 또는 간호원으로서의 여성의 참여는 신화나 문학작품의 연구에서도 뚜렷이 들어난다. 그리스 신화에서의 의학의 신은 아스클레피오스(Asklepios)이지만, 그의 여섯명의 딸은 여신으로 숭배되었던 의녀(artifices medici)들이었다. 그 중 특히 Hygeia는 건강의 여신, Panacea는 만병통치의 여신으로 받아들여졌다.³¹⁾ 신화가 그 시대의 사회적·문화적 환경을 반영한다는 전제를 받아들인다면, 이들 여신들의 존재는 태고적부터 환자·부상자의 간호·치료에 여성이 큰 역할을 했으리라는 추론의 근거가 되려니와, 아울러 여성들이 그 분야의 지식을 상당히 갖추었음을 시사한다고 하겠다.

그리스의 문학작품에서도 여성들의 의학활동은 일찍부터 나타나고 있다, 「일리아드」(Iliad)의 leech 'Agamede', 「오디세이아」(Odyssey)의 이집트 의녀 'Polydamna', Hippolytus의 Phaedra의 간호원 등이 치유술과 함께 묘사된 각종 인물의 예들이다. 그리고 로마의 작가 Hyginus가 'Agnodice 사건'을 작품으로 옮겼다는 내용에 따르면, 아테네에서 여자가 의학을 전수하거나 시행하는 것이 법으로 금지되었던 상황에서 Agnodice가 당대의 명의 헤로필로스(Herophilos, 기원전 300년경 활약) 아래서 남장으로 의학을 익힌 것을 계기로 법령이 개정되었다고 전해진다.³²⁾

III

앞절에서 본 바와 같이 의학전통에서의 여성의 존재는 분명히 나타나고 있으므로, 이제 의학전통의 일반적 성격을 살피고 초기 자연철학과의 상호관련성에 관해 분석하려고 한다.

원시적 의학에서는 demon의 작용 또는 신의 노여움에 의해 심각한 병에 걸린다는 것이 주요이론이었으므로, 병마를 몰아내기 위한 마법(sorcery) 또는 呪文 외우기 등의 의식이 행해졌고, 이를 맡은 것은 medicine men (shamans)이었다. 한편 원시시대부터 각종 약초의 효험을 발견케 된 것은 folk medicine 또는 domestic medicine의 전통으로 공존하고 있었으며, 이런 전통에서 여성들의 기여가 현저했으리라 생각된다.

기원전 3천년경부터 바빌로니아에는 의사들이 출현했으며, 헤로도토스(Herodotos)의 「역사」(History)에서 바빌로니아의 관습은 “길거리에 환자를 눕혀 놓고 행인이 조언을 주리만큼 누구나가 아마추어 의사였다”고 표현한 것으로 보아 경험적 성격이 강했으리라 추측된다. 또한 그리스의 전통적인 치료법은 의신 아스클레피오스를 모신 신전에 환자들이 모여들어 머물면서, 꿈 속에 의신이나 그의 사제가 방문한다고 믿는 한편 식이요법·탕요법·운동을 조화시킨 것이었으므로 주술적 성격

30) 그중 피렌체에 보관돼 있는 메트라도라(Metradora)의 부인병 연구는 유명한 것으로, 1872년 파리대학 Charles Daremberg가 출판을 시도했다가 이루지 못하고 사망했으며 클레오파트라(Cleopatra, 이집트 여왕이 아닌)의 부인병 연구도 라틴어로 보존돼 있다.

31) H.J. Mozans, *op. cit.*, chap. VIII (註 5)

32) J-B. Sophia, M.D., *Medical Women*, p. 11, Edinburgh, 1886: 이 즈음 여성들은 남자의사들의 치료를 받기 꺼렸던 까닭에 산과·부인과 질환으로 사망률이 높았다고 한다. 남장 의사 노릇을 하던 아그노디케(Agnodice)는 치료를 거부하는 여자환자에게 사실을 실토했고, 이런 소문은 그녀를 사형선고를 받을 궁지로 몰아갔다. 형편이 여기에 이르자 여성들이 시위를 벌이게 되었고, 법 개정과 아울러 우수한 여성에게는 장학금까지 지원한 것으로 기록된다. Hyginus의 작품은 영국 James II 세 시대의 Cellor 여사 번역으로 출간되기도 했으나, 아테네에서 여성들의 의학 전수 및 시행이 법적으로 금지되었다가 허용되었다는 설에 대해서 확증할 만한 자료는 발견되지 못하였다; H.J. Mozans, *ibid*, chap VIII (註 5). 그러나 여성들의 의학활동이 시기에 따라 강대되기도 하고 억압되기도 했다는 점은 수긍할 만 하다. 예컨대 우리나라의 조선시대 의녀교육의 경우에도 태종 6년(1406년) 관비를 택해 칠구법 등을 교수하여 의녀를 양성하기 시작했으나, 성종 9년(1478년)에 이르러 의녀근정법을 제정하여 여성은 의사로서 활동하는 것이 억제되고 간병의, 의사보조원, 산파역할을 주로 담당하게 되는 변화를 들 수 있다.

이 뚜렷했다.

그리스 의학상 종교적 의식에서 벗어난 세속적인 의학이 출현한 것은 기원전 5세기 경으로서 이 즈음 활약한 학파로는 흔히 코스(Kos), 크니도스(Knidus), 크로톤(Kroton), 시칠리아(Sicily)의 네 학파를 꼽게 된다. 그러나 이에 앞서 피타고라스가 크로톤에서 community를 형성할 무렵(기원전 520년경), 의사인 알크마이온(Alkmaion)도 이들 학파와 긴밀하게 교류했고,³³⁾ 그의 저술은 소크라테스 이전 철학자들의 생명·물질 이론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³⁴⁾

그리고 피타고라스와 거의 동시대 인물인 데모케데스(Democedes)는 크로톤에서 평의로 활약했고, 파르메니데스 시대로부터 의사들의 길드가 형성되기 시작한 엘레아의 의학과 피타고라스 학파의 상호관련성도 지역적인 조건으로 보아 가능했으리라 추측된다. 실제로 이들 두 학파는 추상적 성격을 증시한 점에서도 비슷하더니와 두 조직의 우두머리의 호칭도 비슷했으며,³⁵⁾ 고대 저술에서는 파르메니데스를 피타고라스학파 또는 피타고라스 후학으로 분류하기까지 했다.³⁶⁾

또한 엠페도클레스(fl. 465 B.C.)가 신체는 원소 성분들의 수학적인 적정비율로 구성다³⁷⁾ 된다고 설명한 것도, 피타고라스와의 접촉에 의해, 특히 알크마이온에서 비롯되는 의학전통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파악된다.³⁸⁾ 당시 널리 퍼져 있던 ‘조화’에 근거한 의학적 분위기는 영혼 또는 생명이 신체 기능의 ‘조화’라는 믿음의 바탕이 되었고, 피타고라스와 필롤라오스(Philolaos)에서 비롯되어 차츰 주요개념으로 체계화된 것 같다. 그러나 이런 개념이 영혼의 불멸성과 운회를 믿던 고대의 전통적 신앙과 어떻게 융화되었는가에 관해서는 여러 견해가 있다.³⁹⁾

앞의 논의에 따르면, 피타고라스 학파는 기원전 5세기경의 그리스 의학전통과 밀접하게 관련되는 것으로 보인다. 이전의 원시적 샤머니즘에서도 의술과 우주론적 개념의 습치는 발견되고 있으나, 종래 그 입장을 달리했던 의술과 자연철학 사이에 결합이 나타나기 시작한 것은 피타고라스 학파에서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리라고 받아들여진다.

이런 견해의 근거로서, 당시 의술에서 크게 중시되었던 식이요법은 체력을 집중·보강·조절하는 목적 아래 금기의 명령체계를 따랐고, 의술처방과 요법의 의식들은 수상징주의(number symbolism)와 상통하고 있었으므로, 그리스 의술의 과학적 근거를 살피는 작업은 피타고라스 학파로 거슬러 오르기 때문이다.⁴⁰⁾

실제로 고대의 의학전통에서는 피타고라스를 새로운 섭생법의 창시자라 일컫고,⁴¹⁾ 의사라고까지

33) D.L. 8. 83, Iam. VP 104, 267 : 여러 저술에서 알크마이온은 피타고라스주의자로 분류되기도 했으나, Simplicius, *In Aristotelis De anima commentaria* (ed. Michael Hayduck, Berlin, 1882), 32. 3에는 아리스토텔레스가 알크마이온을 피타고라스주의자라 부르지 않았음이 강조되고 있다 : W. Burkert, *Lore and Science in Ancient Pythagoreanism*, tr. by E.L. Minar, Jr., p. 280, Harvard Univ. Press, Cambridge, Mass., 1972.

34) The Polemic at Hippoc. Vet. med. 20 : Burkert, *op. cit.*, p. 293 (註 33).

35) 의사 길드의 president는 *φωλαρχος*라 불리웠는데, 이는 피타고라스주의자의 *ἀνερα*와 비슷하다. (Iam. VP 166.)

36) Tannery의 논문(*Harvard Studies in Classical Philology*, 125) 이래로 대부분 피타고라스학파와 엘레아 학파 사이에는 불화가 있었던 것으로 믿고 있으나, 고대의 저술(Strabo b, p. 252 : Proclus, In Parm. 619. 4)에서는 그런 흔적이 발견되지 않는다 : Burkert, *op. cit.*, p. 281 (註 33).

그리고 엘레아의 명의를이었던 히포(Hippo)와 필롤라오스는 파르메니데스의 후계자라 자처하였으므로, 피타고라스학파와의 유사성을 짐작케 한다.

37) 엠페도클레스는 4원소설의 창안자로 가장 잘 알려져 있지만, 이전의 어느 철학자보다도 생물학적 물질에 큰 관심을 두었던 것으로 여겨진다. 이를 뒷받침하는 자료들이 보존돼 있지는 못하다 : E. Mayr, *The Growth of Biological Thought*, 85, Harvard Univ. Press, Cambridge, Mass., 1982.

38) Kranz, *Empedokles*, Zürich: Artemis, 1949 ; Burkert, *op. cit.*, p. 293 (註 33).

39) H. Gomperz, *Hermes* 67, pp. 155~167, 1932.

40) J. Schumacher, *Antike Medizin*, Berlin, 1963 ; W. Burkert, *op. cit.*, ch. II (註 33)

41) 피타고라스가 운동선수들의 식이요법을 개선한 내용과 콩에 대한 금기에 관해서는 Iam. VP 196 참조.

부르고 있다.⁴²⁾ 피타고라스주의에서 건강을 인체의 조화 개념으로 파악한 것,⁴³⁾ 건강 유지에 있어 일상적 식생활 습관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 병에 걸리게 된 것을 환자 자신의 탓으로 돌린 것 등은 당시 의학의 구체적 과학이론을 추출한 격이라 볼 수 있다.

그리고 피타고라스 학파에서의 음악의 중요성은 널리 알려진 바로서, 그리스의 사제와 의사들이 하듯이 정신질환의 치료에 음악을 사용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피타고라스시대 훨씬 이전부터 각 문화권에서는 숫자에 관련된 다양한 설화를 전개시켜 왔지만,⁴⁴⁾ 피타고라스주의의 수상징주의가 다루는 주제들 가운데 우주의 질서에 관한 지식은 치료 의식과 더욱 체계적으로 밀접한 관련을 갖게 되었다.⁴⁵⁾

따라서 피타고라스주의가 의학전통과 관련됐던 것은 확실하므로, 테아노(Theano)를 비롯한 피타고라스 학파의 여성들이 의학에 공헌했다는 전설적 기록⁴⁶⁾을 뒷받침하는 것으로 해석돼도 좋을 것 같다. 이에 관련해서 피타고라스의 여성제자인 페리티오네(Periktione)의 *The Harmony of Woman*의 일부를 인용하면⁴⁷⁾

...요즈음 어떤 이들은 여성이 기병이나 정치가가 되지 말아야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哲人이 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 ... 여성은 가정을 지키고 남편의 시중을 들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나는 용기·정의 그리고 지성은 남녀가 다 같이 지니는 자질이라고 믿는다. ... 용기와 지성은 신체의 강건함과 정신력 때문에 남성의 특질로서 더욱 적합하고, 정절은 여성에게 더 부합된다. ...

고 말함으로써 지성으로서의 여성의 존재를 부분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초기 의학 전통에서의 경험적 성격의 강조, 피타고라스주의와 의학의 상호관련성, 피타고라스 학파에서의 여성의 능력 인정 등의 여러 요소는 학파의 여성들이 의학에 기여할 수 있는 분위기를 제공했으리라 추측된다.

다른 한편으로 위의 인용문은 당시의 그리스 사회에서 여성의 활동이 크게 제약되고 있음을 다음과 같이 표현하였다 :

남편과 가족을 대표해 종교의식에 참여하거나 불전을 사러 갈 때는 밤이나 저녁 때 집을 나서지 않으며, 한낮에 다니고 여노예를 한두명 거느리고 다닌다. ...

이러한 경향은 페리클레스(Perikles)의 연설문의 “여성 본연의 속성을 잃지 않음은 여성의 커다란 영광이다. 그리고 좋은 일이건 나쁜 일이건 남성들의 입에 오르내리는 것은 더욱 큰 영광이다”라는 대목과 크세노폰(Xenophon)의 *Economicus*에서 “일곱살이 넘은 여아들은 gyneconitis에 간혀 엄격한 통제와 명령 아래 가능한대로 보지 말고, 듣지 말고, 묻지 말아야 했다”는 기록에서 더욱 심하게 나타나고 있다.⁴⁸⁾

피타고라스 공동체에 속했던 테슬링 선수 밀로(Milo)는 알·콩·고기를 먹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의 가장 힘센 선수였다고 전해진다 : D.L., *Lives and Opinions of the Eminent Philosophers*, “Pythagoras,” 8, 7.

42) Aelian, *Varia Historia*, 922.

43) 플라톤이 「향연」(186 a)에서 에릭시마코스(Eryximachos)를 통해 신체의 건강을 조화의 개념으로 표현한 것도 피타고라스의 영향으로 해석된다 : Burkert, *op. cit.*, p. 88 n. 24 (註 33).

44) 의학에 관련된 고대 설화 중에는 두통의 처방으로써 berry를 홀수개만큼 씹도록 한 것(Pliny, *Natural History*, 23, 156, Pythagoras 참조), 고대 이집트 의학에서 7이라는 숫자가 중요한 의미를 지녔던 것(Papyrus Ebers, ca. 1500 B.C.) 등 술한 예를 들 수 있다.

45) Burkert, *op. cit.*, p. 470, p. 475 (註 33).

46) Pythagoras는 性에 따른 기능상의 차이를 인정하여 여성에게는 철학·문학 이외에 가정 관련 과목까지 가르쳤으므로, 그의 학파 여성들은 그리스 사상 가장 여성다운 典型으로 간주되었다고 한다 : N. Carroll, *Greek Women*, p. 299, Phila., 1908 ; Mozans, *op. cit.*, chaps. III, VII (註 5).

47) *Source Book*, p. 104 (註 23).

48) 金明子, 「역사 속의 과학과 여성」, pp. 551~553. 『靑山金在玟教授추모논문집』, 삼영사, 1986.

그러나 최근 20세기의 일부 고대 사가들 사이에서는 고전 비극의 여주인공들을 모델로 해서 그리스 여성들이 상당한 지위를 누렸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⁴⁹⁾ 이들 다양한 학설들을 수용한다면, 그리스 여성들의 위치는 문학·예술상으로는 우월한 지위로 묘사되면서, 정치·사회·경제적 측면에서는 극심하게 차별되었다는 이중적 성격으로 귀결되는 것 같다.

한편 그리스 문학을 연대적으로 분석한 연구들에서는 아리스토파네스(Aristophanes), 에우리피데스(Euripides), 헤로도토스, 「공화국」 등을 거치면서 기원전 5세기 말에는 여성의 권리에 대한 관심이 일었고, 따라서 여성의 지위가 점차로 향상되었다는 결론을 도출하고 있다. 그러나 관심의 고조가 필연적으로 지위의 향상으로 연결되었는가의 문제가 남는 것은 물론, 여성 지위에 대한 학계의 엇갈리는 견해도 불구하고 대체로 여성들은 열등한 2차적 성으로 일관하면서 별 저항없이 종속되었다는 것이 일반적 결론이며, 이 글에서도 그런 견해를 취하였다.

IV

현재까지 비교적 온전하게 보존된 最古의 생물과학 분야 저술들은 주로 의사들에 의해 집필된 것들로서, 「히포크라테스 전집」이 주종을 이룬다. 그리스 초기의 생명·물질 문제에 관한 의학적 접근을 보여 주는 이들 자료를 분석한다면, 의학이론에서 규정된 여성의 생물학적·본질적 성격이나 의술시행에서의 여성의 참여수준 등을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으리라 기대된다.

그러나 의술에서의 종교적 성격을 인정하는 한편으로 미신과 주술로부터 그리스 의술을 분리시킴으로써 의학의 사회적·기술적 발달에 획기적 전환을 이룩했다고 평가되는 히포크라테스에 대해서도 확실한 일차적 자료는 남아 있지 못하며, 그의 저술로 알려진 것들도 기원전 5세기에서 2세기까지의 그의 후학들에 의해 집필된 교재·강연록·보고서·병력기록들의 총체로서 이오니아 방언으로 저술된 것이 공통점이다.⁵⁰⁾

「히포크라테스 전집」 가운데 “고대의학”(ca. 420~400 B.C.)으로부터 주로 생명과 물질의 문제에 대한 당시의 관심을 추측해 보면, 생물학적 차이들은 신체의 구성성분의 krasis(temperament 또는 blend)에 달려 있다고 본 알크마이온의 이론을 유지했음이 발견된다.⁵¹⁾ 즉 “고대의학”의 저자는 인체가 서로 반대되는 힘(성질)을 지닌 여러가지 요소들(“a great many other things endowed with other sorts of opposite powers”)의 조합으로 정상적인 상태를 유지한다고 보았으므로, “건강의 유지는 powers —건냉, 온습, 쓰고 단 것 등— 사이의 균형”이라고 생각한 알크마이온의 이론을 따른 것으

49) A.W. Gomme, “The Position of Women in Athens in the 5th and 4th Centuries, B.C.,” *Classical Philology* 20, pp. 1~25, 1925(2차 사료 : 註 98 p. 330).

50) 고대로부터 “Hippocrates the Great”라 불리운 그에 대해서는 플라톤이 두 차례 언급한 바 있다. 하나는 「프로타고라스」(Protagoras)에서 급료를 받고 학생들을 가르친 유명한 의사인 “the Asclepiad of Cos”라 불렀고, 또 하나는 「파이드로스」(Phaidros)에서 의학에 철학적 접근을 한 유명한 “Asclepiad”라고 말한 것이다. 그 밖에 당대의 자료로서는 아리스토텔레스가 “히포크라테스는 ‘the Great Physician’이라 불리웠다”고 한 정도일 뿐, 히포크라테스의 일생에 대한 저술은 500년쯤 뒤 그리스 의사인 소라누스(Soranus)가 전설적인 내용을 모아 엮은 것이다. 히포크라테스의 저술이라 여겨지는 것은 “Aphorisms”, “Prognostics: Air, Waters and Places”, “Regimen in Acute Diseases”, “On Wounds in the Head”이다 : Durant, *op. cit.*, p. 343 (註 11).

고대에 알려지기로는 히포크라테스 저술이 70종에 이르렀으나 현재로는 60종이 알려져 있고, 기원 2세기경부터 ‘진짜 저서’를 가려내는 작업이 이어지고 있다.

51) “Ancient Medicine”에 관한 분석은 다음 논문이 가장 높이 평가된다 : W.H.S. Jones, “Philosophy and Medicine in Ancient Greece,” *Supplements to the Bulletin of the History of Medicine.*, 8, 1~100, 1946(2차 사료 : 註 52 p. 66).

로 평가된다.⁵²⁾

“고대의학”의 저자는 “인체가 무엇으로 구성되어있는가를 알지 못하면 환자들에게 올바른 의학적 처방을 줄 수 없다고 말하는 의사와 철학자들의 견해”에 찬동하지 않음을 밝히면서, “그런 사고방식은 엠페도클레스 같은 철학자에게나 적절한 것”이라고 적었다. “자연과학에 대해서 과학자나 철학자가 말로나 글로 논의한 모든 것은 의학에서는 글쓰기 작업에서보다도 관련이 적으며, 인간의 본질에 관한 확실한 지식은 오로지 의술로부터 얻어진다”고 생각했다.⁵³⁾

그리하여 “고대의학”의 제 1 장에서는 “의술은 모든 사람들에게 가장 절실한 경우에 베풀어지는 실존의 *techné*(art)로서 훌륭한 *craftsman*과 *practitioner*에게 최고의 영예를 돌리는 분야”이기에 가설들의 성립을 통해 접근되는 성격이 아니라 경험을 통해 확립되는 *art*임이 강조되고 있다. 그러므로 당시의 의술상의 이슈로 보이는 “인간의 본질에 관한 이론(철학)으로부터 출발할 것이냐 혹은 경험으로부터 의술을 터득할 것이냐” 하는 문제에서 後者를 택한 것이 확연히 드러난다.⁵⁴⁾

또한 “고대의학”에 나타난 바로는, 건강에 관한 연구로부터 질병에 대한 지식을 얻을 것인가 또는 질병의 연구로부터 정상적인 상태에 관한 지식을 얻을 것인가에 관해 고심함으로써 생리학 및 병리학적인 관심이 상호관련되기 시작했으며, 치료 대 예방의 상대적 중요성, 식이요법 대 약물 투여법의 상대적 비중 등이 주요 관심사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의약품이 언급된 처방이 적은 것으로 미루어 당시의 의술은 예방적 측면을 강조했던 것으로 보이며, 체련담당 훈련사가 음식·음료의 체력 증진 효과를 연구한 사례들로 미루어 일상적 섭생이 중요시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렇듯 의학에서의 경험적 측면이 강조되고 질병의 예방에 평상시의 식생활이 중요한 요소로 다루어졌다는 점은 의술에서의 여성들의 역할을 수용하는 요인으로 작용했으리라 추측케 한다.

한편 「히포크라테스 전집」의 “On the Nature of Man” (ca. 400 B.C.)⁵⁵⁾에서는 생체에 엠페도클레스의 4원소설을 적용시킴으로써 저자들은 서로 구별되는 4체액(*chymoi*)이라는 생리적 원소들을 규정하고 있다.⁵⁶⁾

이는 불규칙해보이는 생리적 현상에 질서를 부여하고, 건강 및 질병을 단순한 원리(*principle*)에 바탕하여 설명했다는 점에서 의술상의 진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질병의 주요원인으로는 열악한 섭생과 나쁜 공기를 들고, 이들이 각각 특발성과 전염성의 질병을 일으키는 것으로 보았다.

그러나 「히포크라테스전집」의 “섭생에 관하여”(ca. 400 B.C.)⁵⁷⁾에서는 4원소 대신 불과 물의 2원소의 개념을 도입하고, “식이요법을 옳게 시행하려면 인체의 구성요소 및 인체의 본질을 다스리는 성분들에 대한 지식을 알아야만 한다”는 입장을 취함으로써, “고대의학”에 나타난 견해와는 근본적인 차이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의사는 모든 식품과 음료의 작용을 알아야 하며, 일반물에 의존할 것

52) T.S. Hall, *History of General Physiology, 600 B.C. to A.D. 1900*, Vol. 1, p. 69, The Univ. of Chicago Press, 1975.

53) Jones, *op. cit.*, chap. 20 (註 51).

54) Hall, *op. cit.*, p. 68 (註 52).

55) “Nature of Man”, Hippoc. trans. W.H.S. Jones, Loeb Classical Library, London and New York, 1931(이하 Loeb Classical Library는 L로 약칭될 것임) : Hall, *op. cit.* p. 71 (註 52).

56) 이것은 글의 수준이나 분량에서 각기 다른 내용들을 묶은 것으로서, 다른 경우나 마찬가지로 여러명의 저자들에 의한 글로 추측된다. (Jones, Hippoc. Introduction, p. xxvii. 참조.) 그리고 4체액 가운데 *phlegm*은 습냉(겨울), *blood*은 습온(봄), *yellow bile*은 건온(여름), *black bile*은 건냉(가을)한 성질을 지니면서 계절에 따라 그 세기가 변한다고 보았다.

57) “On Regimen”, Hippocrates, 1. 2, trans. W.H.S. Jones, Loeb Classical Library, London and New York. 1931 : Hall, *op. cit.*, p. 74 (註 52).

이 아니라 gymnasium에서 환자의 physique을 연구하여 섭생과 운동을 조절해야 한다”고 보았다.

불과 물 사이의 상호작용으로 생리현상을 파악한 “the theme of contrariety”는 이전의 자연철학자들(아낙시만드로스, 헤라클레이토스, 피타고라스학파)로부터 영향을 받은 결과로 보이는 바, 뜨겁고 건조한 불이 동시에 다소의 습함을 내포하고, 차갑고 습한 물이 동시에 다소의 건조함을 내포한다는 “everything contains a part of everything else”의 개념은 오직 2요소에 바탕하여 변화를 합리적으로 설명하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하였다.

“섭생에 대하여”의 저자는 이런 기본 이론을 성차이에 적용시켜 본래 자연적 구성에 있어 “모든 중의 수컷은 따뜻하고 건조하며 암컷은 습하고 냉한”것으로 규정했을 뿐만 아니라, 출생 후의 섭생에서 남성은 덥고 건조하게 하는 식생활에 힘쓰고 여성은 습하고 태만한 섭생을 취하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생긴다고 설명했다.⁵⁸⁾ 그리고 “남성이 딸을 얻기를 원하면 물이 많은 섭생을 취하고, 아들을 원하는 경우에는 불에 치우친 식생활을 해야 한다”고 제안하고 있다.⁵⁹⁾

또한 인간지능(phronesis)에 관한 설명에서는 매우 습한 불과 매우 건조한 물의 결합에 의해 날카로운 분별력과 탁월한 기억력의 지적능력(intellective faculties)이 얻어지며, 그 밖의 여러가지 종류의 조합에 의해 우둔하거나 백치 또는 반미치광이 등등의 지능이 나타난다고 설명하면서⁶⁰⁾ 지능에 대해서도 섭생이 영향을 미친다고 보았다. 그러므로 섭생에 관하여 여성의 지능이 남성보다 본래 열등하다고 명시하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여성은 일반적으로 남성보다 습하다고 규정함과 동시에 매우 습한 불과 매우 건조한 물의 배합으로 우수한 두뇌가 얻어진다고 본 것은 결국 여성의 지적인 열등함을 시사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겠다.⁶¹⁾

이렇게 본다면, 이보다 앞서 개체의 지능을 혈액의 구성에 따라 결정된다고 본 엠페도클레스의 이론,⁶²⁾ 즉 “가장 우수하고 지각력이 뛰어난 사람은, 혈액을 구성하는 4원소가 같은 양씩 섞여 있고, 너무 멀리 떨어져 있지 않고, 입자가 너무 크지도 작지도 않은 경우……”⁶³⁾라고 설명한 것보다 성차이에 따른 지능의 차이를 더욱 구체적으로 다루기 시작했다고 생각된다.

V

위의 논의에 따르면, 그리스 의학이 자연철학과 결합되기 시작하면서 성차이에 대한 인식도 이론적인 체계를 잡기 시작한 것이 확인된다. 이제 고대로부터의 생물과학사상에서 주요관심사였으리라 추측되는 생식과 유전의 문제에서 여성의 역할을 어떻게 보았는가를 살펴보면, 당시의 여성의 생물학적 성격을 파악함과 더불어 사회적 이데올로기와의 상호 관련성도 찾아볼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일반적 통념으로서는 아이스킬로스(Aeschylus)의 *Eumenides*에 나타난 바와 같이 재생산의 문제에서 아버지가 씨를 만들고 어머니가 발을 제공한다는 생각이 당시의 남성 우월의 이데올로기와 부합되면서 널리 퍼져있던 것으로 여겨진다.⁶⁴⁾ 그러나 과학이론상으로는 반드시 그런 경향이 아니었

58) *ibid.*, I. 34.

59) *ibid.*, I. 27.

60) *ibid.*, I. 35.

61) 불-물 명제에 의한 성차이 및 지능차이의 설명은 후에 아리스토텔레스에 이르러 더욱 정교화된 것 같다. 즉 “On the Parts of Animals”에서 두뇌를 불과 물의 compound로 놓고, 뇌가 너무 습하거나 굳으면 지능을 할 수 없다고 보면서, 여성의 뇌는 수분이 많고 부드러워서 감수성이 큰 까닭에 학문적 능력이 결여되었다”고 규정한 논의는 같은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기 때문이다.

62) 엠페도클레스는 생명의 원천을 neikos (strife)에 의한 ekkrisis (differentiation)와 philia (love)에 의한 synthesis에 의해 설명했다 : H. Diels, *Die Fragmente der Vorsokratiker*, 7th ed., p. 20~21, Berlin, 1954.

63) *ibid.*, B 96, 98.

64) E. Lesky, *Die Zeugungs und Vererbungslehren der Antike und ihr Nachwirken*, p. 54, 1951.

음이 흥미롭다. 비록 2차적 자료에 의존한 것이기는 하지만, 소크라테스 이전 철학자들 가운데 파르메니데스, 알크마이온, 엠페도클레스, 아낙사고라스 등은 생식과정에서 여성 역시 씨를 제공한다는 견해를 갖고 있었고,⁶⁵⁾ 피타고라스, 데모크리토스, 에피쿠로라도 여성도 씨를 내어놓는다고 본 것으로 나타나 있다.⁶⁶⁾

예컨대 엠페도클레스는 태아의 잉태에 있어 부모가 질료상으로 똑같이 기여하며, 자궁의 차거운 쪽에 씨가 착상되면 여아, 따뜻한 쪽에 착상되면 남아가 된다고 보았다. 그리고 데모크리토스도 생식에서 씨 물질이 부모 양쪽의 신체로부터 오며, 어느 쪽이 양적으로 우세한가에 따라 성별이 결정된다고 보았다.⁶⁷⁾ 따라서 기원전 5세기 자연철학자들의 생식작용의 이론을 살펴보면, 대체로 종자는 신체의 모든 부위로부터 유래한다는 pangenesis로 요약될 수 있으며, 여성의 신체에도 비슷하게 적용되는 것으로 논의되었다.⁶⁸⁾

그리고 생식과 유전의 문제는 기원전 5세기로부터 4세기 사이의 「히포크라테스 전집」 가운데 “섭생에 관하여”, “발생하는 씨에 관하여”, “어린이의 본질에 관하여”, “병에 관하여Ⅳ” 등의 발생학 연구에서 상세히 다루어짐으로써 이로부터 생식이론 특성과 배경이 반영되고 있다. “발생하는 씨에 관하여”에서는 씨의 강약뿐만 아니라 분량에 대해 고려하면서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⁶⁹⁾

실상 부모는 남성과 여성의 정충을 똑같이 지니고 있다. (남성이 여성보다 더 강한 것은 물론이려니와 더 강한 정충으로부터 생겨난다.) 여기에 덧붙일 것은 : 만일 (a) 부모가 강한 정충을 내어 놓으면, 남아가 생기지만, (b) 약한 것을 생산하면 여아가 생긴다. 그러나 (c) 부모가 서로 다른(세기의) 정충을 내어 놓으면 성별은 그 양이 많은 정충에 의해 결정된다.

한편 “섭생에 관하여”에서 생식작용에서의 성의 결정에 관한 남녀의 역할을 논의한 내용은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⁷⁰⁾

태아의 성별 결정

아버지의 씨	어머니의 씨	태아의 성과 특징
남	남	명석하고 강인한 남아
남	여	사내다운 남아 (덜 똑똑한)
여	남	兩性의 남아 (ανδρογυνος)
여	여	우아한 여자 ⁷¹⁾
남	여	대담하나 그래도 수줍은 여자
여	남	수다스런 여자 ⁷¹⁾

註 : 밑줄 친 표시는 더 우세한 경우를 나타냄.

65) Censorinus, *de Die Nat.* ch. 5, 4 p. 10. 4ff(註 37의 636절 참조).

66) Aetius, V5. 1(註 52 p. 48).

67) 데모크리토스는 생물학에 관한 저술을 남겼으나 후세에 전해지지 못했으며, Hippocrates와 같은 해에 태어나 좋은 친구로 지내면서 많은 영향을 끼친 것으로 전해진다. 그의 생물학 이론에 관해서는, Diels, *op. cit.*, A 140~41 (註 62).

68) Aristoteles, “On the Generation of Animals.” 721 b 11ff.

69) *Source book*, p. 85~p. 87 (註 23).

70) “On Regimen”, ch. 28, 500. 23ff, ch. 29, 502. 24ff.

71) 여기서 사용된 2차적 자료는 G.E.R. Lloyd, *Science, Folklore and Ideology*, Cambridge. Univ. Press, Cambridge, 1983, p. 91과 이미 언급된 T.S. Hall; *History of General Physioiology*, p. 77이었다. 그런데 Lloyd에 의하면 부모의 씨가 여·여인 경우 우아한 여자가 생기고, 부모의 씨가 여·남인 경우 수다스런 여자가 생기는 것으로 해석되었으나, 홀(Hall)에 의하면 위의 두 경우가 서로 뒤바뀐 결과로 해석되어 두 자료 사이에 이 부분에서 상이점이 나타나고 있다. 이 글에서는 로이드(Lloyd)의 해석이 더 타당하다고 생각되어 인용하였다.

여기서 보듯이, 생식의 이론에 있어 히포크라테스 학파는 “seed material”이 신체의 모든 부분으로부터 체액에 의해 생식기로 운반되며, 수정시에는 부모의 씨물질이 섞인다고 보는 pangenesis (또는 panspermia)의 골격을 유지하고 있으며,⁷²⁾ 실상 아낙사고라스에서 비롯되는 pangenesis의 견해는 19세기에 이르러서까지도 다윈을 비롯한 전문가들에 의해 지지될 만큼 영향력이 컸다.⁷³⁾ 「히포크라테스 전집」은 pangenesis의 증거로서 푸른 눈동자의 부모는 푸른 눈동자의 아이들을 생산하고, 대머리 아버지의 아이들은 대머리가 된다는 사실을 들고 있다.

그러므로 이들 이론에서 부모 양쪽이 모두 남성과 여성의 씨를 생산하며 여성이 생산하는 씨가 더 우세할 수도 있다고 규정한 것은 생식작용에서의 성의 동등성을 인정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다. 그러나 “발생하는 씨에 관하여”에서 남성을 생산하는 씨가 더 강하고 여성을 생산하는 씨가 약하다고 본 것은 결국 성의 불평등이라는 당시의 사회적 통념과 연결되는 것으로 해석케 한다.

더우기 「히포크라테스 전집」에서 남아태아는 잉태후 석달 뒤부터 놀기 시작하고, 여아 태아는 녀달 뒤부터 놀기 시작한다고 규정한 것도 당시 그리스인들의 홀수에 대한 우월한 지위의 신비적 신앙에 비추어 보아 남성 우위의 믿음과 관련되는 것으로 생각된다.⁷⁴⁾

그 밖에도 “과임신에 관하여(On Superfetation)”에서 아들은 신체의 오른쪽 부위와 관련된다고 본 것도 대중적 통념과 과학이론의 연결로 볼 수 있다.⁷⁵⁾

「히포크라테스 전집」의 자료들은 여성의 기능에 관한 또다른 측면을 드러내고 있다. 일반적 질환에서는 남녀의 경우를 구별짓지 않고 환자를 줄곧 남성으로 표현하고 있으며,⁷⁶⁾ “On Airs, Waters and Places”, “건강증의 섭생”, “병에 관하여 I” 등의 일부에서 성별에 따른 증상의 차이와 치료상의 구별의 필요성을 언급했을 따름이다. 다시 말해서 「히포크라테스 전집」에서 여성은 주로 산부인과와 관련되어 집중적으로 다루어졌다.

그러나 여성의 생리·출산·수유 및 갱년기 현상 등에 관해서는 그 과정이나 작용에 대해 의학적으로 상세히 기록되어 있지 않다. 이는 여성 특유의 이들 기능이 자연적·정상적 작용으로 인식됨과 아울러 산파와 유모들에 의해 다루어졌기 때문이라 해석된다. 다만 경우에 따라 생리 및 출산 기능은 병리학적 문제로도 다루어졌고, 따라서 생리의 과소현상 따위는 치료를 요하는 증세라고 보았다.⁷⁷⁾

「히포크라테스 전집」의 부인학 관련 저술은 남성과는 별도로 재생산자로서의 여성의 역할에 가장 큰 관심을 둠으로써, 임신·출산이 여성의 가장 중요한 기능임을 강조하고 여성의 질병은 대개가 재생산 기능을 원활히 함에 의해서 치유될 수 있다는 믿음을 내포하고 있다.

그리하여 “발생하는 씨에 관하여”에서는 “첫째로 자궁이 건조하면 수축되어 신체에 고통이 생기는데 성행위가 자궁을 습하게 해주며, 둘째로 생리가 원활치 못하면 병에 걸리기 쉬운데 이것 역시 성행위가 피를 덥게 해서 잘 흐르게 한다”고 적었다.

또한 부인학 관계 저술 가운데 하나인 “처녀들의 병에 관하여”에서는 결혼 적령기이나 아직 미혼

72) “On the Generating Seed”, 1, 3.

73) Mayr, *op. cit.*, section 636 (註 37).

74) 홀수의 우월성에 대한 믿음은 7달, 9달 짜리 미숙아는 살아도 8달 짜리 미숙아는 죽는다고 믿은 민속 신앙에서도 나타난다: “On the Eighth Month Child”, ch. 6. (L. VII 440. 13)

75) 임신 여부의 결정이나 아들·딸의 판별법 등도 popular practice에서 유래한다; *Corpus Medicorum Graecorum*, 12, 1.

76) 예컨대 “Aphorisms”의 Section I에서 VII에 이르는 412항 가운데 Section V의 부인병 관계 항목인 28~62, 69를 제외하고는 남성 위주로 다루고 있으며, “Coan Prognoses”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여기서 참조한 Aphorisms는 *Hippocrates, Great Books of the Western World*, R.M. Hutchins, (ed. in chief) pp. 131~144에 실린 것이다.

77) Aphorisms, 5. 57 (註 76).

인 “parthenos”에게 치료를 위해 결혼을 권하고, 일반적으로 출산 경험이 없는 여성이나 과부에게 “임신하는 것이 최선”이라는 처방을 쓰고 있다. 그리하여 여러가지 여성의 질환에 관해 논하면서 다음과 같이 결론짓는다.⁷⁸⁾

그런데 이 모든 질병은 출산 경험이 없는 여성들에게 더 많이 나타난다; 출산한 적이 있는 여성에게도 물론 생길 수 있다. 이들 질환은 대체로 급성이고 중증이며, 또한 여성들의 질병이기 때문에 잘 파악되질 못하므로 위험한 것이다. 때로 여성들은 무슨 병을 앓는지를 모르다가 생리로부터 야기되는 질환을 겪고 오래 지난 뒤야 깨우치는 수가 많다. 결국 필요성과 시간이 병의 원인을 일깨워 주는 셈이다. 또 여자 환자가 자신의 상태에 대해서 의사에게 올바르게 설명하기 전에는 치료할 수 없는 때도 있다. 여성들은 알고 있을지라도 말하기를 꺼리기 때문이다; 그들은 부경험과 무지 때문에 병을 수치스럽게 여긴다. 그러나 의사를 또한 병의 원인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남성들의 병을 다루듯 함으로써 실수를 범하기도 한다. 나는 이미 이런 과실로 말미암아 여성들이 목숨을 잃는 경우를 많이 보았다. 부인병의 치료는 남성 질병의 치유와는 크게 차이가 나기 때문이다.

이러한 자료들은 여성의 생식작용이 전신의 기능에 영향을 미쳐 성교와 임신이 건강과 직결된다는 원리에 바탕하여 당시의 부인병에 관한 논의가 전개되었던 것을 보여준과 동시에 산부인과 질환의 심각성을 심화시킨 남자의사와 여자환자 사이의 의사소통의 한계성을 시사하고 있다.⁷⁹⁾ 마찬가지로 “여덟달째의 어린이에 관하여”에서도 환자가 남자의사들에게 증세를 소상히 설명하는 것이 여의치 않았던 점과 환자 자신의 임신 개월수 계산에 있어 신빙성이 부족했던 점 등이 지적되고 있다.

또한 “전염병 IV”에는 “여자 환자가 사실대로 말하고 있는지를 알 수 없었다”는 의사의 소견이 적혀 있으며, 환자가 서술한 설명 내용에 관해서는 “그녀는 그렇게 말하였다”라고 따로 구별짓고 있음이 나타난다.⁸⁰⁾

그리고 “전염병 VII”에서 개인별 병력을 기록한 것에 의하면, 여성 환자의 비율은 I 권에서 III 권에 걸쳐 45%로부터 24%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사회적 신분으로는 노예까지 환자로 다루어지고 있으나, 여성 자신의 이름으로 기록된 경우는 드물고 대부분 누구의 아내, 누구의 딸, 또는 어디 사는 여자인가로 표시돼 있으며, 질환의 성격은 출산에 관련된 것들이 주종을 이룬다.

그러므로 여성의 질환은 남성의 것과 구별되고, 치료상으로도 성차이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의료인으로서의 여성의 위치와 성격은 어떠한가를 「히포크라테스 전집」에서 살피는 것도 흥미있는 일이라고 생각된다.

우선 전통적 의학의 종교적 성향으로 보아 의학에 종사하는 의료인들의 전문적 성격과 수준에서 상당한 다양성이 예상된다. Lloyd 에 의해 분류된 바와 같이 아스클레피오스 신전의 의식에 참여한 healer, “처녀들의 병에 관하여”에 나타난 바와 같이 병의 치유를 위해 아르테미스(Artemis)에게 값비싼 의상을 바치도록 소녀들에게 권유한 seer, “성스러운 병에 관하여”에서 비난하고 있는 purifier, 플라톤이 「공화국」(364b ff)에서 언급한 바 있는 떠돌이 돌팔이 등 여러 유형의 의료인들이 활동했던 것이 확실하며,⁸¹⁾ 또한 이 글의 II 절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표비명 등의 자료로부터 산파, 간호원, 유모, 의녀로서의 여성의 역할도 분명히 드러나고 있다.

産學·婦人學 저술에서는 특히 출산시와 자궁내진 등의 경우에서 의사 이외의 여성들의 역할이

78) Source book, pp. 89~93. (註 23).

79) Euripides, Hipp. 233~6에도 여자 환자들은 남자들에게 병의 증세를 모조리 털어놓지 못했던 것으로 나타나 있고, 갈레노스에 이르러서도 여성들은 겨우 산파들에게만 거리낌없이 호소했던 것으로 나타나 있다; De Praecognitione ch. 8, Corpus Medicorum Graecorum v8, 1 110. 13ff; Lloyd, op. cit. p. 79 (註 71).

80) Epidemics IV. ch. 20, Lv 160. 6; Lloyd, op. cit. part II pp. 66~68(註 71).

81) Pomeroy, op. cit. (註 25); Lloyd, ibid, p. 69 (註 71).

개재됐던 것으로 나타난다.⁸²⁾ “여성의 병에 관하여”의 여러 군데에서 부인과와 내진은 남자의사가 아닌 여자의 손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써어 있다. 그러나 그 사람이 여자 환자 자신인지 또는 제 3자로서 여자 간병원인지에 관해서는 구별하기가 어렵다. 한편 “여성의 병에 관하여”에는 의사의 지시에 따라 환자가 직접 내진한 뒤 그 결과를 의사에게 보고하는 내용도 있으며, 그 밖에 여성 환자가 스스로 치료한 것으로는 자궁전(pessary)의 주입과 제거에 대해 기록되어 있다.⁸³⁾

부인과 환자의 진료에서 제 3의 여성의 역할이 명시된 예를 들면, “여자의 병에 관하여 1” 21장에서 유산의 징후와 원인에 관해 논하면서, 그 한가지 이유를 자궁의 부드러운 상태라고 규정한 뒤 그 상태를 내진할 때 “비었을 때 다른 여성으로 하여금 자궁을 내진하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확실히 알 수 없으므로”라고 적고 있다.

“애 못낳는 여자들에 관하여”에서도 여성이 내진을 한 뒤, 환자에게 상세한 질문까지 던지고 있으며,⁸⁴⁾ “태아의 적출에 관하여”에서는 부인과 수술에서 4명의 여자 조수를 쓰라고 지시되어 있다.⁸⁵⁾

위의 논의에서 나타나듯이 남자 의사들은 경우에 따라 내진에서 여성 환자 또는 여성 보조자의 손을 빌리고 그 소견을 존중한 것으로 보이지만, 기록상 이에 참여한 여성을 의사(ιατρός)라고 부른 흔적은 거의 발견되지 않는다. 다만 “여성의 병에 관하여 I” 68장에서 의녀라는 칭호에 가장 가까운 “ἡτῆρρονόσα”라 불리고 있을 따름이다.⁸⁶⁾

VI

Lloyd에 의해 지적된 바와 같이,⁸⁷⁾ 「히포크라테스 전집」의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부인과학 분야의 저술은 1980년대에 들어서도 英譯조차 되지 않은 부분이 많을 정도로 사장되다시피 했다.⁸⁸⁾ 그러나 앞에서 살핀 바와 같이 이들 자료들은 여성들에 대한 당시의 생물학적 인식과 의학상의 처치의 성격, 의학활동에서의 참여수준 등에 관한 연구자료로서 충분한 가치를 지니고 있다.

뿐만 아니라, 그리스 의학 관련 저술의 분석은 생물과학의 역사를 이해하는 데에도 중요하다. 그 까닭은 역사적으로 생물학적 현상은 수천년에 걸쳐 의학(생리학)과 自然史의 분과로 나뉘어 다루어져 왔기 때문이다.

그리스의 생물과학 전통을 선사시대로부터의 자연사 전통과 기원전 6세기로부터의 자연철학 전통으로 분류할 수 있다면,⁸⁹⁾ 자연철학의 태동과 더불어 생물학적 문제에서도 새로운 형태의 질문이 제기되기 시작한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피타고라스 학파, 엘페도클레스, 데모크리토스 등이 운동·영양·지각·생식의 문제를 다루기 시작한 것으로부터, 이들 네가지 현상에 대한

82) “On the Diseases of Women I”, ch. 67, 140 15f: Carn. ch. 19, L VIII 614. 8ff:

Lloyd, *op. cit.*, pp. 70~72 (註 71).

83) 부인과 저술에서 자궁전(橙)은 자주 언급되고 있으나, 히포크라테스 선서에는 “환자가 요청하더라도 극약은 주지 않을 것이며, 마찬가지로 여성에게 낙태를 목적으로 자궁전을 주지 않겠다”는 대목이 들어있다: *Hippocratic Oath, Great Books*.

84) E. Littré, *Oeuvres complètes d' Hippocrate*, (10 vols.) 408. 17, 410. 3, Paris, 1839—61.

85) 죽은 영아의 제거 수술에서 남성 또는 여성의 조수를 두고 있는데, 여성 조수를 쓰기를 권장한 것에 대해서는 후에 소라누스에 의해 “환자를 좀더 안심시키기 위한 배려”라고 해석되었다: Soranus, *Gynaecology* II 5; Lloyd, *op. cit.*, Part II. 2 (註 71).

86) 의녀 *ιατρός* 라는 호칭이 처음 발견된 것은 기원전 4세기 중반의 파노스트라테(Phanostrate)의 묘비명에서였다. (註 25)

87) Lloyd, *op. cit.*, Part II (註 71).

88) 초기의 과학사 분야 연구로는 P. Diepgen, *Die Frauenheilkunde der alten Welt*, München, 1937 등이 있으며, 연구 분위기가 성숙되지 않은 점에 관해서는 Arethusa, p. 125ff, 1973 등에서 다루었다.

89) Mayr, *op. cit.*, pp. 85~87 (註 37).

microdynamic explanation이 이후 생물과학사의 주요골격을 이룰 만큼 지대한 영향을 미쳤던 것이다.

그러나 이들 전문가들은 대부분 철학적 연역에 의존하여 접근되었던 것이지, 과학 연구실험에 의한 객관적 사실에 바탕한 것이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사상 처음으로 그런 형태의 정확한 표현이 시도된 까닭에 생물과학의 출현이 가능했던 것이고 보면, 당시의 연역적 추론은 경험적 과학의 전개에 있어서도 중요한 가치를 지닌다고 생각된다. 다른 한편으로 인체의 해부나 임상적 연구에 기초하지 않은 채 관찰되는 경험적 현상들과 유추에 의한 연역이 주된 방법이었던다는 사실은 초기 이론의 형성기에 시대적 사조나 사회적 통념(예컨대 남성 상위의 사고)이 영향을 미칠 소지가 컸음을 시사한다.⁹⁰⁾

생물과학사에서 소크라테스 이전 철학자들은 생물학적 작용에 의해 외관상 지각되는 현상을 기술하고, 그 바탕에 내재한 자연적 cryptomena로서 이를 설명하려는 시도를 했고, 생명과 물질에 관한 물음에서 성별의 결정, 지능의 우열 등에 관한 견해의 형체를 갖추기 시작했다.

그러나 생물학적 주요 관심사의 하나였던 생식과 유전의 문제에서 기원전 5~4세기 경의 과학이론은 상당한 다양성을 노출시키고 있어, 하나의 통합된 이론으로 표현하기가 힘들 정도이다. 유전의 원리는 보편적으로 수용됨으로써, 일리아드의 서사시에 나타나듯이 아버지의 영웅적 특질이 아들에게 유전된다는 믿음을 당연시하고 있다. 또한 피타고라스 학파의 저술에 나타나듯이 “아버지를 꼭 닮은 자식들을 낳아주는 것”을 여성의 최고 영광이라고까지 표현하고 있다. 그러나 부모의 특성이 후손에게 어떤 방식으로 대물림을 하는가에 대해서는 밝히지 못한 채로, 소크라테스 이전 철학자들은 대체로 재생산에서의 성의 역할은 거의 동등하게 인정했다고 볼 수 있다.

이런 점에서는 생식이론은 당시 퍼져 있던 남성우월의 이데올로기와는 부합되지 않는다. 이는 수학화에 의해서 과학적 성격이 증진된 물리학 분야와 달리 대중적 믿음이나 전통적 성향이 크게 작용한다고 생각되는 생물과학 분야에서도 초창기 이론의 형성에서는 이들 요인에 의한 결정적 영향이 관찰되지 않는다는 결론에 이르게 한다.

히포크라테스 전통은 생물과학사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고 생각된다. 그 방대한 저술이 말해주듯이, 이들 학파는 자연사적 전통 및 자연철학적 전통과 공존하면서 생물과학의 또다른 골격인 생의학적 전통을 수립한 것으로 평가되며, 알렉산드리아 학파와 갈레노스 등에 의해 전승되어 특히 해부학과 생리학의 모체를 이루었던 것이기 때문이다.

「히포크라테스 전집」중 부인학 저술은 최근 학자들의 관심을 끌고 있으나, 발표되기 시작한 연구 결과들은 상반된 결론을 내어 놓고 있다. 그 전형적인 예로서 루셀(Rousselle)은 부인병의 자료들이 환자들과 의녀들에 의해 제시된 것이라고 주장한 반면,⁹¹⁾ 마눌리(Manuli)는 환자의 내진에 있어 남자의사들의 역할을 전적으로 강조하고 있다.⁹²⁾

이 글에서는 II절에서 묘비명 등에 나타난 단편적 자료와 설화 및 문학작품에 반영된 의녀의 존재를 제시하고, 기원전 5세기~4세기 경의 의술관련 기록으로부터 앞에 말한 전설적 자료를 뒷받침할 만한 근거가 발견되는지를 살펴 보았다. 그 결과 의료활동 및 관련저술에 있어 여성 환자를 비롯한 여성 보조원의 존재가 확인되기는 하나 의술 기록상으로는 ‘physician’의 자격으로 명시되어 있는 못하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그러나 질병의 중세를 호소함에 있어 여성들끼리만 자유롭게 설명할 수 있었다는 점이나, 당시

90) 헬레니즘 시대에 활발했던 시체해부연구는 여성의 신체구조를 보다 자세히 밝혀줌으로써 기원전 300년 경 헤로필로스, 에라시스트라토스 등의 알렉산드리아 의학파의 활약을 가능케 했고, 이러한 의학상의 발달은 기원 1세기 경의 Soranus의 *Gynaecology* 저술에서 집대성되었다고 할 수 있다.

91) A. Rousselle, “Images médicales du corps en Grèce; observation féminine et idéologie masculine,” *Annales* xxxv, 5, 1089~1115, 1980 ; Lloyd, *op. cit.* p. 62 (註 71)

92) P. Manuli, “Elogio della castita,” *Memoria* III, 39~49, 1982 ; Lloyd, *op. cit.* p. 62(註 71)

여성들 사이에 널리 퍼져 있던 acrid pessary 등의 몇몇 요법에 관해 이들 저술에서 비판을 가했던 점 등은 학문적 전통 이외의 의료활동에서 여성들의 역할이 컸으리라는 추측을 뒷받침한다고 본다.

기원전 5세기경의 의료활동의 다양한 성격으로 보아서도 그러려니와, 예컨대 분만시의 산파의 역할도 널리 알려진 것이다. 그리고 의사가 없을 때에는 주부가 가족 중의 환자를 돌보는 것이 의무였고,⁹³⁾ 그런 경우가 구체적으로 언급되었다.⁹⁴⁾ 당시의 사회에서는 여성 환자가 남성의사의 진료를 받기를 꺼리고, 의사소통에서도 제약을 받았던 형편인 데다가 산부인과 질환의 발생 빈도로 미루어 결국 의녀들의 출현은 불가피했으리라 짐작된다.

그러나 이 글의 결론에 있어 무엇보다 강조돼야 할 것은 「히포크라테스 전집」의 생물과학 저술의 성격이 여성의 일차적 가치를 재생산 기능에 두고 있다는 점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이런 성격은 여성들의 질환이 대부분 생식기능의 원활한 수행에 의해 치유된다는 믿음으로 연결되었던 것이므로 여성 관련 의술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이러한 생물학상의 이론은 당시의 과학외적 개념들과도 연관시킬 수 있다. Woman의 그리스어 'gyne'는 'wife'를 뜻하는 것이므로, 여성의 존재가치가 재생산자(reproducer)에 일차적 의미가 있었음을 반영한다. 실제로 헤시오도스(Hesiodos)⁹⁵⁾에서 나타나듯이 여성은 자체력이 없고 방종하나 남성이 구축한 사회에 재생산을 위해 존재하는 필요악(a kalon kakon)으로 규정된 것과 일맥상통한다.

그리고 당시 여성들의 결혼 적령기와 재생산자로서의 여성의 역할 사이에도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고대 그리스 사회에서 대개의 여성은 14세에 결혼하는 것으로 기록되는데,⁹⁶⁾ 여기에는 여성 본연의 생리적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나이에 결혼하지 않는 것은 일종의 낭비이며 생리적 부조화를 초래할 것이라 생각했던 이유가 작용했다고 추측된다.⁹⁷⁾

따라서 그리스 고전기 초기의 의술 및 생물과학에서 여성에 관련된 자료를 분석한 결과로는 과학 이론상의 여성의 성격, 치료·처방에서의 성차별 등이 심각하게 나타났다고 볼 수는 없다. 그러나 여성들의 임신·출산 기능을 제일차적 기능으로 파악한 것은 이후 사회에서의 여성의 생산적 활동 기회와 지위를 제약하는 방향으로 결정적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된다. 남성과 여성의 성차이를 규정함에 있어 여성의 출산·양육의 생물학적 기능을 가장 중요시했던 분위기는 문화적 진화과정에 깊숙히 침투되어 결국 여성을 남성에게 종속시키고 남성위주의 문화체계를 형성하는 데 결정적 요인이 된 것으로 보인다.⁹⁸⁾

생물과학이론상의 여성의 성격을 살펴보면, 남성과 거의 동등하게 취급되던 소크라테스 이전 철학자들로부터 히포크라테스 후학들을 거쳐 Aristoteles에 이르면서 차츰 성차별이 심화되는 변화를 볼 수 있다. 예컨대 아리스토텔레스에 따르면 재생산에서의 남성과 여성의 역할은 형상과 질료의 관계로 유추됨으로써 씨-발의 이원적 관계를 맺게 되는 것이 그 좋은 실례이다. 따라서 「히포크라테스 전집」의 여성관련 자료들의 성격은 성차별의 정도에 있어서는 아리스토텔레스주의 보다는 초기의 소크라테스 이전 철학자들의 견해에 좀 더 가까웠던 것으로 보이며, 「히포크라테스 전집」이후의 생물과학저술에서 성차별의 성격을 분석하고 과학외적 요소와의 상호관련성을 파악하는 일도 흥미있으리라 생각된다.

93) Xenophon, *Economicus*, 7. 37; Lloyd, *op. cit.* p. 79 (註 71).

94) Demosthenes, LIX 55ff; Lloyd, *op. cit.* p. 79(註 71).

95) Hesiod, *Theogony* 585.

96) Xenophon, *Economicus* 7. 5.

97) 고대 그리스인들의 결혼에서 남편은 아내보다 16세 이상 연상인 것이 관습이었으므로, 더우기 남편의 뜻대로 아내를 길들이기가 쉬웠으리라 추측된다: D.C. Richter, "The Position of Women in Classical Athens", R. 4, *Classical Journal* 67 (1971) (註 98 The Arethusa Papers, p. 33 참조).

98) M. O'Brien, "Feminist theory and dialectical logic", *Signs*, 144~157, 1981; J. Peradotto and J.P. Sullivan, (eds.) *Women in the Ancient World: The Arethusa Papers, Selected Bibliography on Women in Antiquity*, State Univ. of New York Press, Albany, 1984.